

# 한부모가정의 부(父)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A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single-fathers

송현애\*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의전담교수

Song, Hyun-Ae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 Abstract

Single-parent families are on the rise because of the death of one parent for various disasters and rapid rise of divorce, single-parents suffer various stress such as economical difficulties and emotional confusion like domestic duties, nurturing, remarriage originated from the lost of one spouse.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single-fathers.

This program was developed in the viewpoint of the family consolidation. The program was composed of 3 dimensions; the stress management from domestic duties, the guideline of child nurturing, and the good remarriage. And the trial method and assessment method were suggested. The advantages of this program were the objects and contents : This program put the focus in the single-fathers which were ignored in other researches, and in the source of anxiety of single-fathers originated daily family life. This program will provide useful data for an intervention of proper welfare policy of single-father families.

Key Words : single-father families,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stress management from domestic duties, child nurturing, remarriage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변화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독신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동거가족 등 새로운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에서도 최근 이혼, 별거, 유기에 의해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최근 추이를 보면 특히 급격한 이혼율의 상승이 이들 가정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05)에 따르면 2004년 총 혼인건수는 31만 900건으로 2003년 30만 4900만 건에 비해 6000건 증가하였고, 총 이혼건수는 13만 9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 8000여건 줄었으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도 2.9건으로 전년보다 0.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주일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토록 하는 숙려기간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백나경, 2005).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들 가족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비정상적이거나 병적인 가정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경제적인 면, 정서적인 면, 교육적인 면 등에서 취약한 가족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최근에 이르러 한부모 가정을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정의 하나로 이해하기 위한 실태연구와 이들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에 제안되고 있는 기존의 전략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강기정 등, 2002). 한부모 가족은 일반적으로

\* Corresponding author: Hyun-ae Song  
Tel: 031) 706-3826, Fax: 041) 620-9528  
E-mail: shyuna@empal.com

생계비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가정생활불만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미성년자녀 편모가구가,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은 미성년자녀 편부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변화순 등, 2001). 즉 부모의 성에 따라서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비해서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곤란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이제까지 거의 문제시되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Mason et a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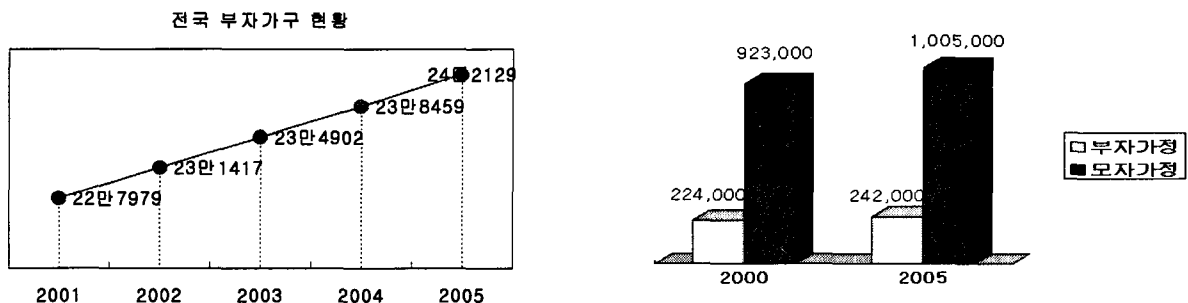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흔히 모자가정을 떠올리지만, 부자가정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2005년 전국 1590만 일반가구 중 한부모가구는 124만 가구로 이중 엄마와 미혼자녀로만 이뤄진 모자가정이 83%, 부자가정이 17%를 차지했다. 이혼과 아내 가출 등으로 남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자가정은 2000년 22만 4572가구에서 올해 24만 2129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수치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05).

이와 같이 부자가정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 무력감, 좌절감 등으로 시달리는 모자가족 못지않게 부자가정은 가사문제와 자녀양육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윤완중, 2003).

부자가정의 부가 겪는 문제는 모자가정의 모가 겪는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직장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가사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백나경, 2005). 부자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가사지원'이나 '무료급식 또는 반찬배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모자가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

양육은 감정적 표현과 애정표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부는 모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돈과 한계를 경험하며 극단적으로는 자녀양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김희정, 2001). 부자가정의 경우 대리수행자가 없어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아 유기 및 방치에 노출되어 있고(안진희, 2005), 더 나아가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05)가 확인한 아동학대는 모두 3891건이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285건이 한부모가정의 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자가정에서의 자녀학대는 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과중한 부모역할 수행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자녀를 학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전재일 등, 1999).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점차적으로 부자가정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가정의 수적 증가나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모자가정 위주로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왔으나 이를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하여 '모자복지법'이 2002년 12월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복지시설 입소와 학비·양육비 등 지원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한부모 가정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여겨지는 모부자복지법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자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06년도에는 인천시에 부자보호 시설 1곳을 전국 최초로 신축해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3년간 수용,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이 가능하도록 취업훈련도 지원하는 등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자가정의 자립자활을 도울 방침(인천시, 2005)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모자



[그림 1] 부자가구의 현황 (자료: 통계청, 여성가족부)

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에 비해 부자시설은 전문화 상태이다. 게다가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정의 지원정책은 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절대다수의 일반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전무한 실정(최유술, 2004)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로 요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나 아동양육비·학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서비스 등 시혜적인 측면에 치우쳐왔으며,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시행해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양적 증가추세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요보호여성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부모 가정 전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수의 특별한 가정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과 형식에 치우친 사업이기보다는 가족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김경신, 2003)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이 근본적으로는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 각자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가족생활기술을 발달시키는 것(김경신, 2004, 미간행)이라고 볼 때, 한부모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을 가족 스스로가 생산적으로 재창출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원의 잠재력을 개발, 강화하고 가족 간의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자가정의 경우 모의 부재로 인한 가사처리나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모자가정보다 더 심각해 이로 인한 소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인 지원책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이들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가정경영 전반에서 야기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립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부(父)의 힘을 복돋아 전반적인 가정생활 향상은 물론 나아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잘 양립해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자가정의 안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프로그램개발 배경

### 1. 부자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한부모가족의 '한'의 의미는 '하나로서 온전하다, 가독 차다'란 의미로(한국여성민우회, 1999) 한부모라는 용어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의 역할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 의미를 지닌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편부모를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별거, 가출, 유기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양육자이면 모자가족(편모가족, 여성한부모가족, 싱글맘 가족, fatherless family, mother-headed single-parent family)으로, 부가 주양육자이면 부자가족(편부가족, 남성한부모가족, 싱글대디 가족, motherless family, father-headed single-parent family)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운다(안진희, 2005; Anderson & Sabatelli, 2003).

이들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 한부모가족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부모가족 문제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문제와 결부되어 연구(장혜경·송다영, 2001)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되고 장시간의 근로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직업지위가 낮아 사회적 지위가 낮고 자아존중감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생활고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면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등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욕구조사에 의하면 '취업상담'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중요시 되어 이들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은 부모역할의 일부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의 심각성(설영숙, 1998)과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으로 죄의식과 스트레스를 느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이거나 일관된 태도를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김미숙, 2001)등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들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현재 지역사회복지관, 모자보호시설, 여성단체, 자활후견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부모들의 공동체도 형

성되어가고 있다(이은희, 2004). 이들 중 한부모가족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사회복지관이 한부모 가족에게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며(변화순 등, 2001),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나마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은희, 2004)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국 394개소의 복지관 중 대체로 한부모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들에서는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청소년교실 및 한부모가족 여성을 주 사업대상으로 한 자조모임 등 한부모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상담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한부모자녀 캠프,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오락 및 레크레이션 행사 등 야외활동이나 가족나들이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자녀와 함께 하는 각종 캠프나 자연학습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주 하지 못하는 가족나들이도 하고 또 한부모로서 고립감을 극복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는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상담위주의 내용과 후원위주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회성이나 행사성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 복지관의 주 사업대상이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부자가정이 가정생활만족도나 자녀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자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근 일부 복지관의 경우, 저소득 부자가정의 가족유대감을 향상시키고자 부자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자녀를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부자가 함께 하는 주말농장프로그램, 가족나들이, 건전한 소비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싱글대디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여(대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자녀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름캠프, 장애인시설봉사활동 등을 진행해 부자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이 또한 행사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정의 경우 가족기능상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얼마든지 변화와 독립이 가능한 구체적인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쪽 부모의 빈자리를 메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의 서비스들과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부자가정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부자가정의 부는 자녀를 데리고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소지를 안고 있고,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적 역할과 자녀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재생산적 역할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이들의 복지가 위협받고 있으므로(신상숙, 2005) 이러한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혼자서 모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감정표현이나 애정표현에 있어서 모보다 서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느껴 재혼을 고려하게 되나(박미현, 2003) 그 과정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나 자녀양육 등이 주로 모에 의해 이루어져 온 만큼 부들은 가사처리나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등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교육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1)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게 됐어요. 9살, 12살 남자 아이들을 키우게 됐는데,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고 먹을 것 싸 놓고 저녁에 밥 먹이고....집안 청소하고...일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면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안일을 내가 혼자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걱정이네요.' (P씨, 42세 이혼남/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발췌)

부자가정의 부가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은 그동안 배우자에 의해 관리되던 가사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리관리자도 없고 자녀는 어리고 일을 계속해야 할 경우 부자가정의 부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상태에 처하게 된다(윤완중, 2003). 부자가정의 부는 직장생활을 계속함과 동시에 아내가 맡아오던 가사일을 맡아야 한다. 음식준비, 집안 청소, 시장보기, 아이들 옷사주기, 세탁하기, 자녀가 성장했을 때 이성과의 교제준비를 의논하는 일 등의 여러 가

지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내야 하므로 가사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대부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자가정의 부에게 있어서 가장 곤란하고 힘들어지는 문제는 가사처리 및 가계관리라 할 수 있다(전재일 등, 1999). 그러므로 가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숙달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부모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욕구와 목표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자가정의 부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함과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가계관리역할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특히 시간이라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문제가 된다(최유술, 2004).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양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자원이지만 시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시간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부자가정의 경우 집안일이나 자녀양육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산재한 가운데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 지 혼란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적인 시간관리의 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가사일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가 된다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분담하는 것(Anderson & Sabatelli, 2003)이 자신에게나 자녀에게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에게는 사회적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지적 관계망 형성이란 한부모가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한부모가족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친척이나 친구, 이웃, 혹은 사회기관 중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지가 될만한 자원을 찾아내어 한부모가족과 연계시키는 것이다(조홍식 등, 2002). 가족이나 친척뿐 아니라 이웃, 종교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도움과 호의 등도 이들 가족의 삶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의 적절한 도움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지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한부모가족에게 외부지원망과의 연결은 이들 가족의 구성원들을 돕는데 필수적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의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빈곤한 가족이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외부사회와의 연결은 빈곤하지 않은 가족에게 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Walsh, 1998/2002:168).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풍부하고 지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통달감이 신장되어 사회적응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빈약하고 스트레스를 인식하면 할수록 자신감과 통달감이 위축되고 사회적응 능력은 저하된다(권복순, 1993). 따라서 부자가정이 일상생활의 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관계망 안에 있는 상황이므로 사회관계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부자가정이 처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복지관에서는 부자가정의 부들로 이루어진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조모임은 그들의 고립감을 해소해주며,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부자가정의 부들과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며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김희정, 2002). 그러므로 부자가정이 사회적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정에서 부가 한부모에 대한 편견이나 부당한 시선을 받으며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감정적으로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해 두면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으므로(추정선, 2003), 부자가정의 부에게 이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극복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2) 자녀 양육 및 교육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이나 일상생활면에서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하는데 엄마만큼 못하니까 불만족스럽고 딸 아이가 특히 불만이 많은 편이고 아무 이유없이 미워하거나 짜증낼 때 정말 견디기 힘들지요. 작은 녀석은 그냥 덤덤하게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반면에 딸은 뭘지 모르지만 항상 불만덩어리예요.' (H씨, 47세 아내와 사별/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발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보면 자녀양육에 있어 부자가정보다 모자가정의 생활이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신상숙, 2005). 이와 같이 부자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로서, 실제로 부자가정의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자녀들의 관심과 욕구를 다루는 일에 미숙하여 부와 자녀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전재일 등,

1999). 일본에서는(최유술, 2004) 부자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자가정과는 차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모자가정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대부 및 자활에 중점을 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자가정에게는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자가정이 되어 생활이 정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생활이 안정되기까지 개호인을 파견해 개호 및 보육 등의 원조를 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부자가정의 부가 직장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단기 입소 생활원조 사업과 야간양호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부는 어려움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부모역할(parenting)의 문제를 가진다. 여성과 남성 한부모 모두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을 기울이기 어렵다.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부재는 정서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정서적인 불안을 겪게 될 뿐 아니라 모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모성실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조미희, 1999)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춘기 여아를 둔 경우에는 성문제나 여아를 위한 건전한 역할모델이 부족하여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므로(백나경, 2005), 자녀의 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경우 교육의 기회를 더욱 강화하여 가족원의 적응능력 향상뿐 아니라 부-자녀간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과 보육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이며, 또한 한부모 상태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 시킴으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조홍식 등, 2002)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떤 발달단계에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은 어떠한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잘되고 있는지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부모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향상에 중요시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배우도록 하는 것(전재일 등, 1999)은 부자가정에서 자녀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 원만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대안으로서의 재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6년간 아이와 둘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중학생이라 한창 예민한 나이라 빛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아이가 가끔 '아빠, 평생 나하고 둘이 같이 살거지?' 라며 나에게 확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L씨, 42세 아내와 사별/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발췌)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상당기간 배우자 상실로 인한 커다란 충격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윤완중, 2003). 부자가정의 부는 부부관계의 파탄이후 스스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고 가급적 피하려 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가족제도에 대해 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더 고립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고립감을 친족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다른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전의 결혼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사회적 관계의 접촉을 피하고, 결국 혼자된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폐쇄적이고 고립된 감정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내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은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탱하기 어렵게 하고 폐쇄적으로 만들며, 이러한 고립감이 심화되는 경우 부는 불안과 우울, 소외감에 시달리게 된다(최경석, 2003). 또한 부자가정의 장기화로 자녀들의 방과 후 생활지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와 관련해 부는 재혼을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신상숙, 2005). 따라서 재혼을 고려할 경우 과거의 실패를 통해 지혜를 터득하고 자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여 건강한 홀로서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그 후에 역시 건강한 홀로서기를 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혼의 어려움은 초혼보다 훨씬 높은 이혼율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재혼은 초혼보다 가족관계, 친척,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자녀문제라 할 수 있다. 부자가정의 부들은 항상 자녀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이성교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재혼의 기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완중, 2003). 편부들은 새로운 여성이 나타나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이 혼란스러워 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꺼리는 경향

이 있고, 실제로 아버지가 새롭게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전재일 등, 1999)으로 나타났다. 자녀문제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문제라서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결국 부부간의 갈등과 재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좀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Jordan, 2003)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Ⅲ. 프로그램의 구성

#### 1. 교육목표

본 프로그램은 부자가정의 잠재력과 응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가사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녀를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셋째, 자녀와 함께하는 재혼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재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한다.

#### 2. 교육대상

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은 부자가정의 부(父)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부모가정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그리고 한부모가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고려해 집단을 구성해서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 간에 보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10명 내외의 소규모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3. 교육내용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제의 선정기준은(김순옥, 2001), 개발자의 학문적 당위성이거나 교육대상자의 요구이다. 개발자의 학문적 당위성이란 개발자가 학문적 경험에 근거하여 가족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대상자의 요구는 말 그대로 교육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후에 그것들을 교육내용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의 학문적 당위성에 근거하여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부자가정에서의 가사나 자녀양육 및 신중한 재혼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제와 내용은 전술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제와 목표, 그리고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한부모가정의 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요

회	주제		목표	주요 교육내용
1	가사	가사의 달인되기	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자신감 고취	- 살림살이의 지혜 - 시테크 - 구매의 기본 이해
2		가사부담 벗어나기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능력 함양	- 비공식적, 공식적 지원체계 -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
3	자녀양육	우리아이 알아가기	자녀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부모역할 습득	- 부모됨의 유형 -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이해
4		좋은 아버지 기를세우기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 방법 습득	-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 전하기 - 자녀에 대한 관심갖기
5	재혼	재혼 바로보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 재혼의 장, 단점 - 자녀와 함께 하는 재혼

## □ 1회 : 가사의 달인 되기

목표: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가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진행	교육내용	준비물
도입 (1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행자를 소개한다.</li> <li>2.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적극 참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li> <li>3. 참여동기와 목적, 기대를 얘기한다.</li> <li>4. '아내없이 혼자서 집안일을 꾸려나가면서 특히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참가자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한 후,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제시한다.</li> </ol>	이름표 필기도구
강의 및 활동 (60분)	<p><b>활동 1-1.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b>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우선 성인학습법 중 게임법을 이용한다. 즉 O,X 문항으로 이루어진 의식주 등 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 활동지(예: '누렇게 변색된 흰 운동화는 치약을 문혀두었다가 물로 씻으면 하얗게 된다')를 작성하게 하고 정답을 제시해 각자 채점 후 참가자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격려한다.</p> <p><b>강의 1-1. 살림살이의 지혜 터득하기: '이럴땐 요렇게'</b> 식품의 유형에 따른 냉동식품 해동법, 신선하게 계란을 보관하는 방법 등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위의 각 문항들을 간략히 부연설명하며 살림살이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p> <p><b>활동 1-2.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슨 일을 먼저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b> 활동지에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 후, 시간이라는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p> <p><b>강의 1-2. 효율적으로 시간사용하기: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테크</b> 가사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숙지시킨다. (예: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보관한다' 등)</p> <p><b>활동 1-3. '아이 옷을 한 벌 사주려고 합니다. 옷을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를까요?' (입을거리 영역)</b> 참가자들의 발표를 시킨다. 품질(바느질의 상태, 세탁의 용이성), 융통성(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옷과의 어울림)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동시에 가격, 스타일, 착용감 등이 검토되어야 함을 숙지시킨다.</p> <p><b>활동 1-4. '며칠 동안 먹을 찬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가려하는데요...' (먹거리 영역)</b>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식품 구매시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를 작성하게 한 후, 참가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p> <p><b>강의 1-3. 구매의 기본 이해하기: 구매활동시 유의점</b> 사전계획을 세워 구입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충동구매와 과잉구매를 피하도록 하며, 식품구매시 제조일자나 유효기간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p>	<p>활동지1</p> <p>OHP1</p> <p>활동지2</p> <p>OHP2</p> <p>활동지3</p> <p>활동지4</p> <p>OHP3</p>
종결 (15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에의 참여를 격려한 후, 앞으로의 회기에 참여함으로써 가사부담이나 자녀양육 등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li> <li>2. '나라면 할 수 있을거야'(강산에) 가사가 적힌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tape를 들으며 함께 노래 부르며 교육참가자들에게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li> </ol> <p>▷과제: '살림살이의 지혜 터득하기'(강의 1-1)의 내용 중 3가지 이상 실천해 보기</p>	오디오테이프 유인물1



□ 2회 : 가사부담 벗어나기

목표: 가사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숙지한다.

진행	교육내용	준비물
도입 (10분)	1. 전 시간의 과제를 점검하며, 실행후의 소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 가사부담으로 인해 힘들고 답답해서 탈출하고 싶었던 상황을 경험했거나 또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질문하고, 이번 회기에는 가사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제시한다.	이름표 필기도구
강의 및 활동 (75분)	<p><b>활동2-1. 자녀와 역할분담하기: '어떤 영역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할까요?'</b> 자녀와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가사일의 종류를 제시한 활동지를 주고 체크하게 한 후 발표하게 한다. 가사일이 힘들어 스트레스가 된다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p> <p><b>활동 2-2.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를 찾아 봅시다'</b> 작성하게 한 후 발표시킨다. 친구, 가족(친척), 이웃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음 내키지 않는다면 당당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p> <p><b>강의 2-1. 사회적 지지체계 활용하기: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b> 부자가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도시락배달서비스 등)를 소개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b>활동 2-3.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시다'</b> 작성할 시간을 주고 발표시킨 후, 집안일이나 자녀양육, 경제활동 등으로 지칠 때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본 후 의견을 나누어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p> <p><b>활동 2-4.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봅시다'(장점찾기)</b>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을 가능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발표 후 박수쳐 격려한다.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줄어들뿐더러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됨을 인식시킨다.</p> <p><b>강의 2-2. 스트레스 관리 방안</b> '생활습관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 극복 전략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p> <p><b>활동 2-5. '스트레스해소 체조'</b> 앉아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체조의 시범을 보인 후 따라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p>	<p>활동지5</p> <p>활동지6</p> <p>OHP4</p> <p>활동지7</p> <p>활동지8</p> <p>OHP5</p>
종결 (5분)	<p>자녀를 비롯해서 주위의 비공식적, 공식적인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고,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가사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한다.</p> <p>▷과제: 집으로 돌아가 '자녀와 역할분담이 가능한 영역'(활동2-1)에 대해 자녀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p>	

□ 3회 : 우리아이 알아가기

목표: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습득한다.

진행	교육내용	준비물
도입 (10분)	1.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2. 부자가정에서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지만, 부모역할에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례(예: '정음 산골 쌍둥이 신동 파이팅!', 조선일보, '06.2.4)를 소개하면서 부자가정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름표 필기도구
강의 및 활동 (75분)	<b>활동 3-1.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b> 좌표상에 자신의 위치를 체크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자기 자신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활동지9
	<b>활동 3-2. '나의 부모로서의 유형을 감안할 때 자녀를 기르면서 어느 점에 주의해야 할까?'</b> 자신의 부모로서의 유형을 감안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인지 발표시킨 후 보충설명한다.	활동지10
	<b>강의 3-1. 부모됨의 유형</b> 부모됨의 4가지 각 유형과 그로 인한 자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부모의 유형(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부모)에 대해 강조하며 설명한다.	OHP6
	<b>활동 3-3. '초경, 동정은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b>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신체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b>강의 3-2. 자녀의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부모역할</b> 사춘기의 시작과 남녀의 신체적 변화를 그림으로 제시한다. 자녀의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녀를 성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여야 함을 설명한다.	OHP7
<b>활동 3-4. '미로찾기 게임'</b> '사춘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된 상담대상자는 00이다', '자녀가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하면서 자녀에 대한 00를 가져야 한다' 등 자녀의 정서적인 변화에서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문제로 제시하고 미로찾기 게임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내도록 한다. 즉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길에 자음과 모음을 적절히 배치하여, 도착지에 골인하면 그 답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11	
<b>강의 3-3. 자녀의 정서적인 변화에 따른 부모역할</b> 사춘기자녀에게 주요개념인 자율권, 또래집단 등을 설명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인 변화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한다.	OHP8	
종결 (5분)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아버지 역할을 행함으로써 자녀와 원만한 관계 형성을 다짐한다. ▷ 과제: 유인물('21세기가 추구하는 인간형, 21세기 도태형')을 나누어주고 내 자녀는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보고 오도록 한다.	유인물2

\* 기존의 부대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주로 초중고 자녀를 둔 3,40대의 아버지들이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기의 부모역할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참여자들의 자녀가 사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사전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4회: 좋은 아버지 기틀 세우기

목표: 자녀에 대한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습득한다.

진행	교육내용	준비물
<p>도입 (10분)</p>	<p>1.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2. 지난 회기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음을 언급한다. 3.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아버지들의 감정표현이 서툴러서 자녀와의 관계향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숙스럽고 어색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제시한다.</p>	<p>이름표 필기도구</p>
<p>강의 및 활동 (75분)</p>	<p><b>활동 4-1. '성공을 위한 포인트(Tip to Success)'</b>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적힌 유인물(예: 대화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 주는 열쇠이다 등)을 나누어주고 읽어보게 한 후, 마음속의 감정이 겉으로 표현되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한다.</p> <p><b>활동 4-2.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b>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칭찬해줄만한 일을 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등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예: 자녀가 자신이 먹은 간식그릇을 깨끗이 설거지를 해 놓았다),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각자 발표한 후,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잘된 응답을 뽑아 큰소리로 함께 연습해보도록 한다.</p> <p><b>활동 4-3. '내자녀의 장점 Best 10'</b> 발표를 시킨 후, 부모들이 자녀를 칭찬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요인(자녀의 고칠 점, 단점 등)이 부모의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표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p> <p><b>강의 4-1.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 전하기</b>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해 설명한다.</p> <p><b>활동 4-4. '좋은 아버지 20계명: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요?'</b>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읽게 한 후, 간단히 부연설명 해주고, 각자 어느 정도나 실천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이 중 '자녀의 사소한 것을 기억하라'의 항목과 관련하여 '우리 아이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학교에서 몇 번 몇 번인지, 담임선생님 성함, 가장 친한 친구이름 등)를 작성해보도록 하고 발표시킴으로써,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자녀와 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의 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p> <p><b>강의 4-2. 자녀에 대한 관심 갖기</b>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생활에도 관심을 보여 담임선생님을 만나 솔직하게 부자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p>	<p>유인물3  활동지12  활동지13  OHP9  유인물4 활동지14  OHP10</p>
<p>종결 (5분)</p>	<p>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아버지들의 망설임을 충분히 공감하되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과제: '우리 아이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활동 4-4)에서 한 문제 이상을 틀린 사람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오도록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맺음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p>	

□ 5회 : 재혼 바로보기

목표: 재혼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재혼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재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도록 한다.

진행	교육내용	준비물
<p>도입 (10분)</p>	<p>1.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2. 재혼에 대해 고민하는 부자가정의 사례(p.6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 지 걱정입니다')를 제시하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p>	<p>이름표 필기도구</p>
<p>강의 및 활동 (60분)</p>	<p><b>활동 5-1. '재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좋은 점과 어려워지는 점은?'</b> 참가자들의 생각을 발표시킨 후, 재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말 것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p> <p><b>강의 5-1. 재혼의 장·단점: 새로운 만남은 조심스럽게</b> 재혼은 좋은 점(외로움해소 등)도 있지만 재혼으로 인해 힘들어지는 점(새로이 맞게 된 형제 자매관계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등)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요약, 설명해 준다.</p> <p><b>활동 5-2. 비디오시청: 영화 '스텝맘'</b> (감독:Chris Columbus) 자녀들과 새엄마와의 갈등상황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사벨이 선물로 준 강아지에 대한 애나의 반응 장면 등)을 보여주고, 재혼 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새엄마와 자녀들과의 적응문제임을 인식시킨다.</p> <p><b>활동 5-3. '새로운 이성친구가 생겼어요. 아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알린다면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b> 참가자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한 후, 가능한 아이들에게 데이트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자녀의 부에 대한 배신감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p> <p><b>강의 5-2. 아이와 함께 하는 재혼: 내 이성친구, 아이에게 소개하기</b>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예: 집근처의 레스토랑으로 데이트하러 갈 때) 자신의 재혼에는 자녀를 배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	<p>활동지15</p> <p>OHP11</p> <p>비디오테이프1</p> <p>활동지16</p> <p>OHP12</p>
<p>종결 (20분)</p>	<p>부자가정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사처리나 자녀양육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며, 생활 중 야기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재혼을 서두르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재혼이 자신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재혼을 결정했을 때는 자녀를 자연스럽게 동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결한다. ▷평가: 개인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p>	<p>평가지</p>

#### 4. 시행방법

교육은 가사관련 2회, 자녀양육관련 2회, 재혼관련 1회 등 모두 5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 단위로 1회 90분씩 실시하도록 한다.

각 회의 진행은 각 회에 필요한 worksheet, OHP, audiotape, videotape이나 유인물 등을 사용하며, 매 회마다 전 회의 과제를 검토하고 각 주제에 대한 관련 사례를 제시해 그날 이루어질 교육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도입부분, 강의와 활동을 통해 의견제시를 격려하고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개부분,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고 실천항목들을 정리해주며 과제를 부과하는 종결부분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상과 같이 본 프로그램을 5회로 진행하되, 본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인 부자가정의 부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물론 현실적으로 생계와 가사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으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4회의 한 달 코스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매주 가사, 자녀양육, 재혼 등에서 각각 90분 분량의 내용을 선정하여 3회를 시행하고 나머지 한 주는 교육참가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훈련'이나 '복지교실', 그리고 '인간관계훈련'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첫째, 건강한 부-자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갈등 해결방법 및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가 요구되므로, 마지막 주에는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인 나-메세지와 반영적 경청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자녀간의 '대화훈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부-자녀간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한층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옥선화, 2002). 또는 둘째, 마지막 주에 부자가정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서비스, 부자가정에 유익한 인터넷사이트나 영화, 위인전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복지교실'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부자가정의 부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해 가는데 있어서 크고 작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셋째, 교육을 실시하기 전, 첫 회에 '인간관계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자신과 타인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부드럽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후속 교육에 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 평가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5회의 교육을 마친 후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평가내용에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유익하였던 내용,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대상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까', '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느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본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안 일이 많아 혼란스러울 때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자애로운 것과 엄격한 것은 양립할 수 있다' 등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 인식,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자녀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 등 재혼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시행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해 봄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응답내용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부자가정의 부를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자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나름의 특징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들이 모자가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부자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에서, 부자가정의 부를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자가정의 가족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부자가정의 잠재력과 응집력을 증진시키고자, 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가사부담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하기'(1, 2회), 자

녀를 이해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기르는 '자녀교육을 위한 길잡이'(3, 4회),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재혼 바로보기'(5회) 등 세 가지 주제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의 진행은 워크시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입·전개·종결의 순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부자가정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과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복지관 등에서 부자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1박 2일간의 부자가정을 위한 캠프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를 대상으로 1박 2일의 교육으로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이 경우 부모가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도 별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녀용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부모자녀 동시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행하면 학습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은 교육만 하기보다는 숙박지 근처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지역사회탐방이나 집안에 보관할 가치가 있거나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부모자녀 협동작업 등을 병행하는 것(김경신, 2004, 미간행)이 지루하지도 않고 보람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자가정 자조집단을 구성하도록 도와 상호간에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내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된 가족관계에 활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족공동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부모가 가장 공감하는 존재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한부모이다.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입장에 처한 다른 남성들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 참석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고 교환함으로써 대응책을 발견하고 긴장감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여성 자조모임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한부모여성에게 지원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고립감이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이고 자아존중감도 높게 해주는 것으로(변화순 등, 2001) 밝혀지고 있다.

셋째, 부자가정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 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시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종사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서

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프로그램이 수차례의 시행을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부자가정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일선 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마땅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Fagan & Palm, 2004:234-236) 부자가정의 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부자가정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과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충실히 다루지 못한 이 분야의 외국의 문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이루어져서 부자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프로그램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지원책 위주로 행해져온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대상과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해나가면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통합적인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부자가정,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관리, 자녀양육, 재혼

## 참 고 문 헌

- 강기정·이무영·김영희(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체제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웹사이트 활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권복순(1993)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양자(2000) 저소득 부자가정의 현황과 복지정책방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200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정보전달체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7), 73-89.
- 김경신(2004)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보급. *한부모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자료*. 숙명여

- 자대학교 2004. 11.8.
- 김미숙(200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순옥(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7.
- 김은영(2003)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02) 부자가정 부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www.ngwc108.com.
- 대구안심종합사회복지관 ansim.or.kr.
- 박미현(2003) 저소득 부자가정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나경(2005)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2005) 2005년 모·부자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영숙·황은숙(2004) 한부모가족과 이혼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육행정연구.
- 설영숙(1998) 저소득 모자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나리(2006) 빈곤부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적용의 효과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상숙(2005) 부자가정의 실태와 육구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희(2005)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구미시를 중심으로.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원중(2003)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 이동원의(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서울:양서원.
- 이민규(2004) 현대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 서울:교육과학사.
-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의 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 이순애(2003) 저소득부자가정의 가족상호작용과 자녀의 사회적응과의 관계.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4) 지역사회복지관의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인천시(2005)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책마련발표. 2005.3.9.
- 임보래(2004) 건강한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송다영(2001) 한부모가족의 사회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재일·이성희·남연희(1999) 부자가정의 실태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조미희(1999) 편부모가족의 실태와 복지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2006) 정읍 산골 쌍둥이 신동 파이팅. 2006.2.4. 9면.
-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2002) 가족복지학. 서울:학지사.
- 천혜정·최혜경(2001) 홀아버지들의 이야기: 자녀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23-42.
- 청소년상담원(1996)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서울:청소년대화의 광장.
- 최경석(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서울:인간과 복지.
- 최유솔(2004) 한부모가정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 최희경·이인숙(2005) 비정형가족의 특성과 가족복지에의 함의-강점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5, 245-283.
- 추정선(2003) 정신위생과 심리치료. 서울:교육과학사.
- 통계청(2005) 이혼통계 결과보고서. 통계청.
-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www.hanbumo.org.
- Anderson S.A. & Sabatelli R.M.(2003) *Family interaction-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3th ed)*. Boston: Perason Education, Inc.
- Booth, A. & Amato,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Fagan J. & Palm G.(2004)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N.Y.:Delmar Learnig.
- Gerstel, N.(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209-219.
- Gove, W. R. & Shin, Hee-Choon(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 and widow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Sabourin T.C.(2003) *The contemporary american family: A dialectical perspective o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Sage Publications, Inc.
- Tommime J. Hamner(2001)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and step-families*. Allyn and Bacon.
- Walsh, F.(1998). 양육경 역(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나남.

(2006. 09. 11 접수; 2006. 12. 21 채택)